

기억의 유통기한

- 신수담

동생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문이 열릴 때 잠깐 주춤했으나 이내 올라탔다. 사내는 동생을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자신도 그 옆자리에 앉았다. 동생의 몸에 안전벨트가 채워지는 모습을 그는 복도 창가에서 묵묵히 내려다봤다. 차문이 막 닫히려는 순간, 체념한 듯 사내에게 몸을 맡기던 동생이 그가 서 있는 쪽을 올려다보며 소리를 질렀다.

-너도 당숙과 한 패야, 똑같은 놈이라고!

그의 얼굴이 노랗게 굳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다른 사내가 곧 시동을 걸었다. 차는 얼마 안 가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갔다. 사내들은 거기가 초행이 아니었다. 일 년에 서너 번은 그 병원을 간다고 했다. 익숙한 길이니 두 시간 정도면 도착하겠지. 어디로 가는지 동생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방문 앞에서 응급이송단원들과 마주쳤을 때 동생은 이미 눈치를 챘을 터였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는 기대섰던 창가에서 물러섰다. 일을 끝내고 병원으로 가자면 서둘러야 했다. 현관 쪽으로 몸을 돌리다가 옆집 사는 김과 눈이 마주쳤다. 자다가 나왔는지 부스스한 머리에 험렁한 남색 추리닝 바람이었다. 김이 먼저 눈인사를 건넸다. 허술한 행색과 달리 부딪쳐오는 눈매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김이 언제부터 나와 있었는지, 행여 무슨 눈치를 챘 건 아닌지 내심 걱정이 됐다. 김은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고민이 있어 김에게 몇 번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나이는 비슷하지만 소설가라기에 생각이 남다를 것 같아서 찾아간 거였다. 다행히 사람을 잘못 보진 않았다. 김의 조언과 격려는 그에게 힘이 되었다. 시니컬한 표정과 직설적인 말투가 묘하게 매력 있고 신뢰가 갔다. 단 한 가지 김의 유별난 호기심이 신경이 쓰였다. 말꼬리를 잡고 이거저거 캐묻는데 난처했다. 나중에는 상담 내용과는 무관한, 그의 어눌한 말투며 손 떨리는 증상에까지 관심을 보였다. 여전히 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뒤로는 그가 먼저 김을 찾아가지는 않았다. 그는 부러 바쁜 척 허둥대면서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벽에 붙어있는 노란 포스트잇들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동생이 미처 노트에 옮겨 적지 못한 내용들을 급한 대로 메모해서 붙여 놓은 듯했다. 메모지마다 자잘한 글자들이 빼곡했다. 책상 위에는 절반쯤 쓰다 만 노트가 활짝 펼쳐져 있었다. 노트는 책상 위에도 방바닥에도 흩어져 있었다. 이 자료들을 끌어안고 놓지 않으려 하던 동생이 떠올랐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년 전에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동생은 갑자기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 병원의 강압적인 약물 치료로 기억이 죽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생은 당시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적었다. 오래 전에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끊임없이 노트 위로 불러냈고 당숙의 말이라면 토씨와 옥설까지 그대로 남겼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당숙의 말을 믿을 거라며 동생은 불안해했다. 자신이 정확한 자료를 남겨서 언젠가는 당숙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게 동생의 생각이었다. 맞춤법도 문장도 엉망이어서 누가 알아보기나 할까 의문이었지만 동생은 그 작업에 광적으로 매달렸다.

노트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동생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다. 너무나 그 배역에 몰입한 나머지 종종 제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음을 앞에 둔 사람처럼 고통스러워했다. 그 자신으로 돌아오면 이번에는 당숙에게서 벗어나질 못했다. 동생은 당숙이 부모를 두 번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호감을 가질 수 없는 건 당연했다. 당숙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다. 퇴원 직후의 평온했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일그러져 갔다. 약을 먹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가 달랬지만 동생은 무시했다. 그의 눈에는 동생이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사마귀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였다.

그는 메모지를 한 장, 한 장 벽에서 떼어내기 시작했다. 당장 손대지 않으면 계속 주저하게 될 것 같

왔다. 20여권의 노트와 함께 밖으로 내갔다. 방 정리를 끝낸 뒤 그것들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쓰레기와 함께 버릴 참이었다. 재활용수거함에 내놓으려다가 마음을 바꿨다. 누가 읽어볼까 염려가 됐다. 들고 있던 것들을 현관 앞에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발바닥이 따끔거렸다. 그는 방문 아래쪽을 살펴본 뒤 신발장으로 가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왔다. 여러 사람들이 밟고 다닌 탓에 문지방 주위가 톱밥으로 지지분했다.

만능키가 있으니 문 여는 건 문제없던 사설응급이송단원들은 동생이 안에서 도어의 잠금 장치를 꼭 누르고 있자 당황했다. 그런 상황에서 만능 키는 무용지물이었다. 열쇠업자를 불렀다. 허리가 살짝 굽은 육십 대 노인이 공구함을 들고 나타났다. 노인은 안에서 의도적으로 잠근 문을 열었다간 칼부림이 날지도 모른다면서 돈을 더 준다는 데도 망설이기만 했다. 옆에 서 있는, 깍두기 머리에 역도선수처럼 다부진 근육의 이송단원들을 보고서야 공구함을 열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방법 밖에 없으면서 도어 옆 문틀에 전동드라이버를 들이댔다. 드르륵 드르륵 구멍 뚫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불안하게 흔들었다. 문지방 위로 톱밥이 우수수 떨어졌다. 와중에도 동생은 손잡이를 움켜쥔 손을 놓지 않았다.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어쩌나 그는 조마조마했다.

응급대원이가기보다 얼핏 납치범처럼 보이는 사내들이 성큼 방안으로 들어서자 동생은 손에서 커터칼을 힘없이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살려달라고 비는 동생을 그는 반사적으로 외면했다. 그는 그런 비슷한 장면을 한 번도 아니고 이미 네 번이나 맞닥뜨렸다. 그러니까 이번이 다섯 번째인 셈이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래 전 목격했던 처음의 기억이 완벽하게 오버랩 됐다. 어디선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하마터면 동생처럼 사내들에게 무릎을 꿇을 뻔했다. 이런 식의 입원 절차는 동생은 물론 그에게도 못할 짓이었다. 하지만 도리가 없었다. 그들의 완력을 빌리지 않고는 동생을 병원에 데려가는 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다 끝난 일이다. 그는 이번이 마지막 입원이라고 생각했다. 동생이 입원을 되풀이하는 동안 그는 깨달았다. 동생에게는 집보다 정신병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적어도 그곳에는 당숙의 전화가 가지 않는다. 인터넷도 쓸 수 없다. 무엇보다 약을 먹게 되니 다행이었다. 폐쇄 병동에서 좀비처럼 지내게 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바깥 세상보다는 그곳이 동생에게 안전하다고, 보내길 잘했다고 그는 애써 마음을 추슬렀다.

포스트잇이 사라진 벽은 험했다. 둥그런 알루미늄 틀의 벽시계만 덩그러니 남아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12시 전에 떠나게 될지 가능성이 안됐다. 동생의 방은 방송 뉴스에서 이따금 보던 쓰레기 방과 흡사했다. 들여다보지 못한 지 반 년이 넘었다. 동생은 청소고 뭐고 다 싫다며 제 방에 발도 못 들이게 했다. 그는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다. 우선 입원 수속에 필요한 동생의 주민증부터 찾기로 했다.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하얀 약봉지가 수두룩하게 나왔다. 봉지마다 뜯지도 않은 약들이 가득했다. 퇴원한 뒤로 병원에 발걸음도 않는 동생을 대신해 그가 매달 먼 길을 가서 타온 약이었다. 동생이 안 먹는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봉투째 쌓여있는 약들을 보자 울화통이 터졌다. 동생은 약을 먹으면 무늬야처럼 된다고, 기억을 잃는다고 끝까지 먹지 않았다. 약이 머릿속을 백지로 만드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그런 약이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다. 그저 쇠창살로 막힌 병원에 갇히지 않을 정도의 약발이었을 뿐이다. 그는 동생도 자신처럼 그냥저냥 견뎌주기를 바랐다. 사마귀 같은 놈. 평생 거기 갇혀 지낼 수밖에. 그는 마음에도 없는 저주를 퍼부으며 약봉지들을 쓰레기봉투에 쓸어 담았다.

-요새 누가 이런 걸 쓰나. 이렇게 시의성이 떨어지는 걸. 차라리 연애소설을 쓰는 게 낫지. 이 정도 상상력이면 뭐라도 쓰겠네.

코빼기도 안 보이는 주민증 때문에 속이 타던 중이었다. 옷가지와 이불은 죄다 누더기여서 입원실에 뭘 가져다 줘야 할지 몰랐다.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는 손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다. 현관 앞에 김이 서 있었다. 복도에서 계속 얼쩡거리더니 호기심을 못 참고 그에 들어온 모양이었다. 그는 김의 손에서 노트를 발견하곤 화들짝 놀라 그것을 빼앗았다. 김이 머쓱한 얼굴로 뒤통수를 긁었다. 눈에 띄기에 무심코 집어 들었다고 변명을 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동 마는 동하며 김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괜히 말을 붙였다가 지난번처럼 달라붙으면 어떡하나 주저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기, 좀 전에 한 말이 무슨 뜻이죠? 거, 뭐라더라…… 시의성이 없다고 했던가?

김은 피식 웃더니 혼자 중얼거린 걸 다 들었냐며 별 의미 없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다 끝난 얘기라는 겁니다.

-끝나다니…… 뭐가요?

-아, 저게 동생이 쓴다던 그 소설 자료들 맞죠? 저런 소재는 이제 수명이 다했어요. 대체 그게 언제 적 얘기냐고요. 써봤자 아무도 안 읽는다고. 다들 관심도 안 보이는 얘기라 이겁니다.

그는 어리둥절했다. 말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서였다. 뭔가 잘못 읽은 게 틀림없었다. 오류투성이인 문장들이 김의 시야를 흐리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이야기를 두고 그렇게밖에 말 할 수 없었을까. 그는 김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아수라장이었던 그 며칠간의 상황이 머릿속에서 아우성을 쳤다.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했다. 그는 자신이 그것들을 버리려 했었다는 사실도 잊고 노트 서너 권을 집어 불쑥 김에게 들이밀었다. 동생이 꼭 쓰고 싶어 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노트를 받아든 김은 거실로 들어와 베란다 앞에 놓인 낡은 일인용 소파에 앉았다.

동생의 방으로 돌아온 그는 한동안 벽을 노려보고 서 있었다. 김이 던진 말도, 그 말에 옥해 저지른 자신의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동생의 기록을 타인이 읽는 건 처음이었다. 동생 입장에서야 바라던 일이었을 테지만 그는 아니었다. 어떤 식으로든 당시의 기억을 다시 들먹이고 싶지 않았다. 당숙의 태도를 보면서 그 생각은 더욱 굳어졌다. 노트 속에는 그의 가족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김이 그놈의 시의성을 들먹이지만 않았어도 단호하게 버렸을 것이다. 그 말이 죽어가던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자신은 아직도 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동생은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는데 사람들은 그 일을 다 잊었다니……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왼쪽 손목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때 일들은 한 번 떠오르기 시작하면 잘 가라앉지를 않았다. 자꾸만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났다. 부엌으로 나가 싱크대 찬장에서 약봉지를 꺼냈다. 약을 먹으면 신경이 둔해진다. 그때의 기억들도 희미해진다. 그러면 그럭저럭 견딜만하다. 약물에 뇌가 짓눌리는 느낌이 들고 손이 조금 떨리지만 그런 부작용은 기억이 주는 고통에 비하면 참을 만했다.

그는 냉수로 알약을 삼켰다. 이마의 식은땀을 손등으로 훔치는데 부엌 창문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동쪽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구름 한 점 끼어있지 않은 투명한 쪽빛이었다. 날씨는 오늘도 종일 쾌청할 듯했다. 빌어먹을. 이 계절의 하늘은 늘 눈이 부시게 푸르렀다. 세상 어디에도 어둠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찬란한 눈부심이었다. 당숙의 말처럼 어둠속에 처박혀 있는 존재는 세상에서 동생과 자신 둘 뿐인 듯했다.

문득 등 뒤에서 쫓쫓,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베란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김이 노트를 보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혀를 차는 건 어떤 의미일까. 공감일까, 비웃음일까. 감이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소리가 왠지 위로처럼 들렸다. 분명 위로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자 메말랐던 가슴 밑바닥에서 따뜻한 물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뻗뻗하게 굳었던 안면 근육에도 온기가 도는 듯했다. 그는 면도를 제때 하지 않아 수염이 텅수룩한 턱을 손으로 쓰다듬다가 그때까지 김에게 차 한 잔도 대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렸다.

커피 잔이 바닥을 보일 때까지 김은 별 말이 없었다. 커피를 마시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있던 그는 주저하다가 노트를 펼쳤다. 읽을 마음은 없었다. 그냥 있기가 뽕뽕해서였을 뿐이다. 사실 읽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되는 내용이었다.

-어때요? 진수 씨가 보기엔?

그가 노트를 두어 장 넘기는 시늉을 하자 김이 물었다.

-그, 글썩요. 어쩐지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뭐 리얼하긴 한데.

고개를 끄덕이던 김이 갑자기 탁, 소리가 나게 노트를 덮더니 그를 뺨히 쳐다봤다.

-솔직히 말해주는 게 낫겠죠? 내가 습작생들을 몇 년 가르쳐봤는데, 이런 사람 보면 진짜 딱해요. 진짜 썼다면 세상의 이목을 끌었겠지만 이젠 아니야. 이런 애긴 서점 매대에서도 사라진지 오래예요. 아, 요새 터지는 사건만 해도 다들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눈만 뜨면 배가 뒤집히고 비행기가 추락

하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마당에 다 끝난 얘기 다시 고집어내면 다들 지겨워한다고. 동생보고 최신 소설 좀 찾아 읽으라고 해요.

가슴 속에 차오르던 따뜻한 물이 순식간에 식었다. 김의 말은 위로도 공감도 아닌 좀 나쁘게 말하자면 비웃음이라 할 만한 말이었다. 그는 뭐라고 대꾸를 해야 좋을지 몰랐다. 텅 빈 눈으로 노트의 한 부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끝났다는 건 무슨 말일까. 단지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귀찮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일까. 그도 저도 아니라면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 누가 뭐라던 우리한테 그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동생이 밤마다 시달리는 거, 그게 다 뭇 때문인데. 개가 오늘 병원에 끌려간 게 다, 다 무엇 때문인데…….

-저런, 어쩐지 소설 같지 않더라니. 이게 그러니까 밤마다 동생을 괴롭히는 그 문제였던 말이에요?

그를 쳐다보던 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은 새삼 호기심이 동했는지 다시 노트를 집어 들었다.

동생이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줄은 그도 전혀 몰랐던 일이었다. 김이 말을 해줘서 알았다. 한 달 전쯤 복도에서 김을 만났을 때였다. 김이 복도 쪽 방을 가리키면서, 동생이 밤에 누구랑 자느냐고 물었다. 혼자 자는데요, 했더니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병원에 한 번 데려가 보는 게 좋겠어요. 새벽에 종종 말소리가 들리던데. 내가 그 시간에 일을 하느라 깨어있거든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누굴 죽여 버리겠다고도 하고…… 뭐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종종.

동생이 이 아파트에 산 지 삼 년이 되었지만 이웃들은 동생을 몰랐다. 밖에 나다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동생은 집에서 제 방에만 있다시피 했다. 창문에는 검정 암막커튼을 치고 생활했다. 밖에서 누가 엿본다면서 의심을 했다. 김은 동생이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궁금해 했다. 사채업자나 다단계의 황포에 시달리는 게 아니냐면서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요리조리 캐물었다. 소설의 소재로 수집하는 느낌이 들어 불쾌했다. 그는 동생이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동생은 늘 방안에 틀어박혀서 책을 읽고 글을 쓴다고, 아마도 작가님처럼 소설을 쓰는 모양이라고 돌려댔다.

그 이후로도 동생의 헛소리는 계속됐다. 아니 더욱 심해졌다. 이게 다 당숙 때문이다. 당숙이 터무니 없는 소리만 하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것이다. 당숙은 잇을 만하면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와 그들 형제의 속을 뒤집어놓았다.

그의 말을 들은 김은 당숙을 궁금해 했다. 김은 당숙이 어떤 인물인지, 실존인물인지 아닌지 읽어도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질문 같지 않게 질문을 던지는 건 김이 자주 써먹는 방법이었다. 그는 난감했다. 김에게 당숙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그 역시 당숙을 잘 안다고 자신할 수 없었다. 당숙 보단 차라리 김에 대해 설명하는 편이 더 쉬울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이제까지 당숙이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동생 역시 마찬가지다. 아버지, 어머니 제사에 당숙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친척들 경조사에서도 그는 당숙을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친척들은 모이기만 하면 당숙을 입에 올렸다. 그 양반이니까 그런 일을 해내시지, 우리들 힘으로야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 라든가 이런 건 그 어른 의견부터 들어보는 게 도리 아닌가, 라면서 마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당숙을 치켜세웠다. 그들은 당숙이 집안의 큰 어른이라 했다. 체격 좋고 인물 좋으며 학식도 많다 했다. 그래서인지 친척들 간에는 어떤 사안에 의견이 분분할 경우 당숙의 말씀을 따르는 게 불문율처럼 돼 있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친척들의 데면데면한 눈길이 당숙의 태도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됐다. 친척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그들 형제보다 당숙을 더 걱정했다. 그들은 그에게 넌지시 말하곤 했다. 당숙한테 잘해라. 그 양반이 대장부시라 별 내색이 없으셔서 그렇지 너희 집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다. 뉘처리 하시느라 힘도 썼고 말이야. 그는 고개를 주억거렸지만 당숙이 누구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몰랐다. 모임에서 말없이 구석자리에 박혀있다 일어나곤 했던지라 누구에게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아마도 사업가라면 크게 성공한 축에 드는 사람일 테고 관료라면 고위층일 게 분명하다고 어림만 할 뿐이었다.

아이러니한 건 얼굴도 모르는 당숙의 목소리를 그가 알고 있다는 점이였다. 그와 당숙, 두 사람이 말

을 주고받은 지는 꽤 오래됐다. 어느 덧 삼십 여년이 다 되어간다. 그와 당숙의 대화는 부모의 기일 즈음에 당숙이 걸어오는 전화로 이루어졌다. 그게 정말 당숙의 전화가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어느 해는 지난해와 다른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으니깐. 그러나 그는 감히 당숙의 정체를 의심하지 못했다. 전화기를 들면 상대방은 언제나 당당한 목소리로 나, 당숙인데 라며 운을 떼었다. 그러고는 제사에 참석을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숙이 주로 말하고 그는 주로 들었다. 당숙은 그의 부모의 죽음에 대해 그들 형제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점을 몹시 우려했다. 당숙은 어떻게든 두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 들었다. 당숙의 말이 옳든 그르든, 사실이든 아니든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지만 입으로는 네, 네 했다. 문제는 동생이었다. 당숙은 그와 통화를 하고 나서는 꼭 동생을 바꿔달라고 했고 동생은 기다렸다는 듯 달려 나와 당숙과 싸웠다. 집안 행사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동생은 당숙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몰랐다. 당숙과 통화를 할 때마다 동생은 발작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유년기에 겪은 부모의 죽음을 용케 견뎌왔던 동생이 정신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게 된 건 순전히 당숙 때문이었다. 이번의 입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얼마 전 당숙이 예기치 않게 전화를 했다. 그 날은 아버지 제사도 어머니 제사도 아니었다. 당숙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더 당당하게 들렸다. 당숙은 그에게 한 종편채널의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한 내용을 들먹이며 그것을 봤느냐고 물었다. 못 봤다는 말에 저런, 저런 하고 혀를 찼다. 모름지기 사람이 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늘 눈과 귀를 열어놓아야 하는데, 하더니 방송에서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고 힘주어 말했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죽은 건 나라 탓이 아니라 불순분자들 때문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해도 네 동생은 아니라며 고집을 부렸지 않느냐. 그런데 내 말을 뒷받침해줄 증언이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왔단 말이다. 증인들이 직접 나와서 속속들이 밝혔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당숙은 수십 년간 줄기차게 그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그 당시에 현장에서 장교로 복무했던 자신 만큼 그때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면서 불순분자들 때문에 자신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고 했다. 자신만 그랬던 게 아니라 나라도 그놈들 손에 넘어갈 뻔했다고. 그 상황에 그의 부모는 그 놈들 편에 붙은 거라고 했다.

-물론 아버지가 불순한 사상을 가졌다는 건 아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나쁜 피는 없지. 암, 없고말고. 그러나 상황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건 분명해. 네 아버지, 어머니가 그 놈들의 정체를 알았다면 그렇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거리에서 함께 어울렸겠느냐. 철없이 부화뇌동하다가 결국은 그 놈들 손에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다. 그야말로 객지에서 개죽음 한 거지. 그 사태가 끝나고도 후유증이 꽤 길었다. 오랫동안 거짓이 판을 쳤어. 교과서까지 조작을 했으니 말 다했지. 하지만 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 과연 세월은 힘이 세더구나. 그런데 거기서 활개 치던 불순분자들의 규모가 그렇게 컸다는 건 나도 여태 몰랐었네 그려. 거의 600여 명이나 내려왔다지. 하여간 증인이 출연했으니 너희도 그 방송을 꼭 보도록 해라.

그는 당숙이 말한 증인들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그 인터뷰를 내보낸 방송사가 며칠 뒤 오보라며 사과 방송을 낸 것을 이미 인터넷에서 보아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박 없이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다. 동생은 당숙에게 거품을 물었다. 그때 자신은 아홉 살, 형은 열세 살이었다고. 부모가 자신들이 운영하던 사거리 분식점 앞에서 당숙 같은 제복차림의 남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그 날 아버지가 죽었다고. 겨우 목숨을 건진 어머니는 5년 뒤 심장마비로 죽는 그날까지 방에서 나가지 못했다고. 누가 쫓아올까 창에 검정 암막커튼을 치고 시체처럼 살았던 어머니가 그 방에서 한 일은 그저 살려 달라, 죽여 달라 비는 일뿐이었다고. 대체 당신들은 우리 부모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당숙과 통화 후 동생은 눈동자가 돌아가고 흰자위가 번뜩였다. 당장 당숙을 죽이겠다고 식칼을 들고 설쳤지만 그건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다. 동생의 분노는 그에게로 날아왔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그에게 동생은 칼을 던졌다. 너도 당숙과 똑같은 놈이면서. 그는 동생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왜 너는 당숙에게 말하지 못하는가. 그 역시 자신에게 화가 났다.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해서 방바닥에 떨어진 식칼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싶을 정도였다.

김은 세상사에 관심이 많았다. 이웃의 사소한 변화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평소 김은 말하곤 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소설의 재료라고. 그는 김의 직업 정신에 감탄을 하곤 했다. 그는 김에게 관심이 갔다. 인터넷으로 김의 작품을 찾아봤다. 말을 걸어도 좋은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최근 작품은 눈에 띄지 않았다. 김의 소설들은 대부분 십여 년 전의 저작들이었다. 인터넷에는 김이 현대사의 질곡을 외면하지 않는 관촬은 작가라는 평들이 드물지만 올라와 있었다. 스스로 3류 작가라고 비하하지만 한때는 대학생들에게 멘토로 추앙을 받던 시절도 있었다. 그는 오래 전에 인터넷의 어느 블로그에서 읽었던 소설 <어느 봄날>이 바로 김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독일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모국에 남다른 애국심을 가지고 귀국해 뿌리를 내리던 중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하게 되는 내용으로 비분강개하며 읽었던 책이었다. 당시 그는 동생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앙양불락했었다. 동생처럼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는 결과 속이 달랐고 낮과 밤이 달랐다. 밤이 되면 그는 열세 살의 그때로 돌아갔고 투사가 되었으며 당숙에게 대들기도 했다. <어느 봄날>을 읽고 나서는 자신도 모든 걸 그렇게 까발려보고 싶다는 생각에 밤낮으로 기록에 몰두한 적도 있었다. 다 지난 얘기일 뿐이다. 어느 해 친척 모임에 참석했다 돌아온 그는 면도날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었고 그 이후부터 돌부처로 살았다.

김을 처음 찾아갔던 날 그는 상대가 당황해할 만큼 많은 말을 쏟아냈다. 그렇게 떠들어보긴 철모르던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이었다. 상담할 게 있다고 김에게 말했지만 기실 무슨 용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어머니 제사를 앞두고 당숙의 전화를 받았던 날 느닷없이 김이 떠올랐을 뿐이었다. 그는 무엇에 쫓기듯 이끌리듯 무작정 김에게로 갔다.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질식할 것만 같았다. 고작 인터넷과 책을 통해 아는 게 전부였던 낯선 이에게, 아파트 복도에서 오가다 인사만 몇 번 나눈 상대에게 어떻게 것처럼 다가갈 수 있었는지 스스로도 의문이었지만 그 날의 그는 매우 절박한 심정이었다. 만남이 거듭되면서 송곳 같은 말투가 이따금 거슬렸고 설핏 관음충처럼 느껴지는 남다른 호기심 또한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김이 싫지 않았다. 관촬은 이웃이라고, 적어도 당숙이나 친척들과는 다른 부류일 거라고 짐작했다.

그렇 만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닐 거야. 그는 김의 양식과 안목을 믿으려 했다. 그런데 자꾸만 의구심이 들었다. 김의 말에서는 왠지 모르게 당숙의 분위기가 풍겼다. 그거야 말로 터무니없는 오해였다. 하지만 실체도 없는 그 느낌은 의외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파도처럼 밀려갔다가도 다시 밀려들곤 했다. 파도가 밀려들 때마다 그는 김의 속내를 떠보고 싶다는 생각에 휘말렸다. 이러다 행여 김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게 되는 건 아닐까 싶었다. 그는 자료를 그만 치워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버릴 물건이었다. 그러나 눈을 돌려 노트에 몰입해있는 김을 보는 순간 그의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

-관심 있으면 동생 대신 직접 소설을 써보는 건 어때요? 사실 이 소재는 작가님이 책임잔데…….

그러나 김은 시니컬한 목소리로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난 이제 이런 거 안 써요. 연애소설이라면 모를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건 시의성이 없다고. 뭐,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야 세상이 아주 모른 체 하지는 않겠지요. 세월이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만 모두가 나 몰라라 하겠어요, 설마. 하지만 난…… 이쪽에 관심 끊었어요.

그랬구나. 그는 심한 모멸감으로 손이 떨려왔다. 심장이 격하게 고동을 쳤다. 그는 김 앞에서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작가의 관심사를 독자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러나 어디 실연당한 얘기 없냐고, 그거라면 내가 눈물 나게 써 줄 수 있다고 김이 덧붙이자 더는 참지 못했다. 그는 김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농담이라며 김이 껄껄 웃었지만 그는 따라 웃지 않았다. 그러잖아도 새벽에 먼 길을 떠난 동생 때문에 속이 쓰린 마당에 거기에 영산을 뿌리는 듯한 김의 말투는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는 더 이상 김과 얼굴을 맞대고 싶지 않았다. 아까부터 머릿속에 따리를 틀고 있던 의문 하나가 그 순간 불쑥 고개를 치켜들었지만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시의성이란 도대체 누가 판단하는 거냐고. 시의성이 없다고 누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냐고. 이 자료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어느 봄날>에서 한 등장인물의 입을 빌어 당신이 던졌던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고 김에게 질문을 던지는 대신 그는 유리창에 투영된 허깨비 같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주인공의 사형이 집행된 뒤 십여 년의 세월이 흘러 정권이 바뀌자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독일 유학 중에 주인공과 가까이 지냈던 여러 지인을 어렵게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인들은 오래 전에 끝난 문제를 새삼 고집어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면서 되레 소송을 만류했다. 주인공의 어머니는 단호했다. 끝이라니! 난 그 말에 동의 못해요. 우리에게 청산할 게 남아있는 한 그 문제는 결코 끝난 게 아니지요. 그건 당신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대목을 고집어낸다면 김이 어떻게 반응할까, 무슨 변명을 늘어놓을까 내내 궁금했었다. 그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역시 이쯤에서 대화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이 뭐라던 이 상황에서 달라지는 건 어차피 아무 것도 없고, 어눌한 자신이 달변가인 김을 당할 수도 없을 터였다. 그는 응급 이송차가 사라진 아파트 정문 너머를 응시하며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 놈이 그 놈이라니 이게 대체 뭔 소리야. 그가 동생 방으로 가기 위해 막 몸을 일으킬 때였다. 그 때까지 잠자코 있던 김의 입에서 뜬금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김은 검지로 노트를 가리켰다.

-당숙과 당신 사이, 동생이 오해한 거겠죠?

노트에는 며칠 전 당숙과 통화를 끝낸 동생이 그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날 동생이 던졌던 식칼이 자신을 향해 다시 날아드는 것처럼 그는 몸을 움찔했다. 동생이 노트에 그런 말까지 써놓을 줄은 몰랐다. 물론 누군가는 그런 의문을 가질 법했다. 당신은 당숙 앞에서 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었느냐고. 당신은 그 지옥을 함께 겪지 않았느냐고. 같은 질문을 그는 스스로에게도 이미 여러 번 던진 적이 있었다. 질문은 언제나 그를 곤혹스럽게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구차스러운 변명 말고는 내놓을 게 없었다.

당숙과 친척들이 그래도 아주 매정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매달 얼마간의 생활비를 보내주었다. 지금 그의 일자리도 그들이 마련해줬다. 변변찮긴 하지만 밥벌이 정도는 됐다. 동생은 그런 사정을 몰랐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동생의 관심사는 오직 한 가지 밖에 없었으며 머릿속은 그것만으로도 포화상태였다. 그런 마당에 그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었다. 함께 날을 세웠다면 그들 형제는 살아남지 못했을 게 뻔했다. 당숙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하루아침에 준 것들을 모조리 빼앗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동생을 보살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김이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동생이 오해할 만도 하네요.

-동생은 당숙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글쎄, 내가 보기엔 당신이 동생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여길 봐요. 동생은 당신과 함께 싸우고 싶어 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말이죠. 동생은 당신을 원망하면서도 끝까지 기다렸다고요. 동생은 당신이 당당하게 의견을 밝혔다면 오히려 당숙 쪽에서 물러섰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뿐인가요? 억지소리를 멈추고 생활비를 더 늘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두 사람이 악착같이 따졌다면 어쩌면 당신은 약을 끊게 되고 동생은 암막 커튼을 걷어치웠을지 누가 압니까. 그랬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당신의 말은 당신 내면의 두려움이 지어낸 핑계가 아닐까요.

-두려워하다니요. 긴 세월 할 말을 참고 사느라 나도 힘들었다고요. 분노를 억누르느라 약을 먹으면서 거의 무뇌아처럼…….

울컥한 그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게 살아남는 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당신이 내게 약을 먹는 이유를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 왔을 때 왜 그렇게 손을 떠느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말했잖아요. 그때 당신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당신이 약을 먹은 이유는…… 그래요, 그게 당신의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그때는 굳이 감출 이유가 없었거든요. 당신은 당숙이…….

김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김에게 묻고 싶었다. 당신이 당숙을 얼마나 아느냐고. 그런 당신은 왜 연애소설만 쓰는 거냐고. 무의미한 질문이었다. 게다가 그가 보기에 김은 연애소설은커녕 이제는 소설을 쓰는 것 같지도 않았다. 절필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벌써 10년 넘게 신작이 없었다. 여전히 세상

사에 관심 많고 현미경 같은 눈을 가졌고 밤마다 자판을 두들기지만 그건 단지 김의 오래된 습관일 뿐 인지도 몰랐다. 그는 김을 외면한 채 빈 커피 잔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정이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입원 수속은 2시간 만에 끝이 났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절차가 좀 길었다. 동생은 그가 원무과에 도착해 의사와 마주앉을 무렵 남자 보호사들에게 이끌려 먼저 자리를 떠났다. 그에게 마구 폭언을 퍼붓는 동생을 보다 못해 의사가 취한 조치였다. 상담을 끝내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의사에게 그가 물었다.

-입원 경험이 있으니 잘 아시겠지만, 증상에 맞는 약을 찾는 데만도 석 달에서 반년이 걸립니다. 조바심 낸다고 될 일이 아니란 거죠. 기록을 보니 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그동안 약을 제대로 안 먹은 모양이에요. 이런 환자들 치료가 제일 어렵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의사 말을 안 듣고 약을 멋대로 끊어버리거든요. 결국은 다시 옵니다. 보호자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지요. 그래서 말인데요.

의사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강조하듯 덧붙였다.

-면회 자주 오실 거죠? 맡겨놓고 무심한 가족들이 가끔 있어서요. 장기입원으로 가면 아예 연락 끊는 경우도 있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는 원무과를 나와 동생이 입원해 있는 7병동으로 갔다. 10층짜리 구식 건물은 우중충한 회색이어서 오후의 햇빛을 듬뿍 받고 있는데도 그들이 진 듯 병동 전체가 어두워 보였다. 벽은 여기저기 도색이 벗겨져 시멘트가 드러났다. 5층으로 올라가 진회색 철문을 여니 정면에 간호사실 데스크가 보였다. 간호사 한 명이 자리에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병실은 간호사실 왼쪽 옆으로 난 복도를 따라 좌우로 길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간호사실과 병실 사이를 천정까지 닿는 견고한 철창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데스크로 다가가 동생을 불러달라고 말했다. 간호사가 철창 밖 면회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입원 직후여서 환자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잠시 후 복도 안쪽에서 동생이 건장한 남자보호사의 팔에 이끌려 걸어 나왔다. 동생의 걸음은 평소에 비해 매우 느렸다. 동생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구내매점에서 사온 빵과 우유를 철창 사이로 들이밀었다. 이미 점심시간을 넘긴 지 오래였다. 종일 굶었을 텐데도 동생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 흐리멍덩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눈빛만큼은 늘 형형하던 동생이었다. 그가 데스크 쪽을 쳐다보자 간호사가 말했다.

-병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난동을 부려서 약을 좀 세게 썼어요.

그는 빵과 우유를 손에 든 채 난감해했다. 동생 옆에 서 있던 보호사가 철창 밖으로 손을 내밀었다.

-이따가 전해줄게요.

보호사는 그가 주는 것들을 받아들더니 이제 그만 가보라는 듯 그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철창 사이로 다시 손을 내밀었다. 동생은 그의 손을 잡는 대신 풀기 없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형…….

동생이 무슨 부탁이라도 하려나 싶어 그는 철창 앞으로 바투 다가섰다. 그러나 동생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입속으로 뭐라고 웅얼거리기는 했으나 그것이 의미를 갖춘 소리가 되어 그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그는 동생의 입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으나 그뿐이었다. 동생이 곧 등을 보이며 돌아섰다.

-윤수야!

그는 다급하게 주먹으로 철창을 두드렸다. 동생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얇은 슬리퍼를 끌며 천천히 멀어져 가는 동생의 뒷모습을 그는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난간을 짚어가며 간신히 계단을 내려온 그는 7병동 출입문 앞에 놓인 간이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버스정류장으로 가야했지만 힘이 풀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서쪽하늘을 무연히 바라보았다. 기울어져가는 오후의 해가 사방에 막바지 햇빛을 뿌려내고 있었다. 어렸을 때

동생은 해가 지는 것을 싫어했다. 한 여름에도 따가운 햇볕 아래 몸을 달구며 뛰어놀았다. 그러던 동생이 암막커튼으로 해를 막았다. 방에는 사계절 내내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병동에서도 햇빛을 보기는 어려울 게 뻔했다. 그의 눈앞에 병실과 간호사실 사이에 굳건하게 쳐져 있던 철창이 떠올랐다. 환자들은 바깥출입을 할 수 없다. 일주일에 두 번 30분 정도 남자 보호사의 인솔 아래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매점에 다녀오는 게 외출의 전부였다. 쇠창살 친 조그만 창 하나밖에 없는 병실은 불빛마저 침침했다. 쇠창살 안쪽의 어둡고 기다란 복도와 천장에 매달린 생기 없는 형광등을 떠올리자 그는 돌연 심장이 멎을 듯 숨이 막혀왔다. 당숙을 아니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김의 말은 그의 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날카로웠다. 굳이 듣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폐인으로 변해가는 동생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동생을 보호하고 생활을 책임지는 것- 이 다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핑계였다는 자괴감을 떨치기가 어려웠다. 동생을 정신 병원에 보낸 사람은 당숙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김의 지적을 그는 반박할 수가 없었다.

철창 앞에서 동생은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것일까. 그는 동생이 우물거린 몇 마디를 헤아려보려고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너도 당숙과 한 패야. 똑같은 놈이라고! 새벽 공기를 흔들던 그 목소리만 환청처럼 귓전을 어지럽혔다. 그는 동생의 오해가 억울했다. 그는 당숙과 한 패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김이나 동생이 자신을 오해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새벽부터 추를 매단 듯 무거웠던 그의 마음은 기어이 바닥으로 추락해버렸다.

그는 사흘을 내리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머릿속이 방전이라도 된 듯 깜깜했다. 나흘째 되던 날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동생 방으로 건너갔다. 검정 암막커튼을 젖혔더니 밝은 햇살이 방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암막커튼을 뜯어냈다.

그는 며칠째 현관 한쪽에 부려두었던 자료들을 책상 위로 옮겼다. 책꽂이 한 줄을 모두 비우고 노트들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자료의 주인은 동생이니 처분도 동생에게 맡기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기억의 주인이 동생만은 아니었다. 그는 동생이 모르는 자신 만의 기억을, 차마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싶지 않은 검은 기억들을 자신의 몸 곳곳에 깊숙이 감추어두고 있었다. 그것들은 전혀 퇴색하지도 유실되지도 않았다. 그는 동생이 퇴원하기 전에 노트가 그만큼 더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오후의 부드러운 햇살이 책상머리에 내려앉을 무렵 방 정리가 끝났다. 그는 동생의 책상 앞에 앉아 새 노트를 펴고 펜을 들었다.